

제 목	가로등 소등시간 조정	담당부서	대구시설관리공단 가로등관리팀
사례분야	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업	담당자 (연락처)	전상익 (053-603-0961)

□ 추진배경

-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의 정책적 추진사항인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가로등 소등시간을 조정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함
- ※ 현행 : 점등시간(일몰 10분 후 점등)/ 소등시간(일출 20분전 소등)

□ 추진실적

- 관련기관 회의 및 현장실사 : '15. 12. 8
 - 장소 : 가로등관리팀 관제실 및 달서대로
- 협의사항
 - 점등시간 : 현재 시간 유지
 - 소등시간 : 일출 20분전 → 일출 15분전(5분 연장)

□ 향후계획

- 소등 조정 일시 : '16. 1. 1부터 시행
- 시행 1년 후 소등시간 조정과 교통사고 발생관계를 분석 및 추가 조정 검토(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조)

□ 관련자료

새벽 가로등 5분 더 불 밝힌다

기사전송 2015/12/20, 21:15:26

대구, 내년부터 연장 운영 교통사고 예방·시민 편의

대구시가 새벽시간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편의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내 전지역 8만4천587개의 가로등 중 터널, 지하차도, 육교 등에 설치된 가로등을 제외한 5만2천550개에 대해 소등 시간을 일출 20분전에서 일출 15분 전으로 조정, 5분 더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.

앞서 시는 이달 초 구·군, 대구지방경찰청,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, 대구시설관리공단, 시민단체 등 13개 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주요지점에 대한 조도측정 등 현장조사를 시행했다.

이 합동 현장조사 결과 하루 중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일출 20분전에 가로등을 소등하면 갑자기 조도가 떨어져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물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로등 소등시간을 5분만 연장하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.

대구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2014 교통사고 통계분석(2015년판)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5명이며 이중 4시부터 8시 까지의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2명으로 전체사고의 22.7%에 이른다고 밝혔다.

김창열 대구시 도로과장은 "가로등 운영시간 5분 연장으로 특히 우유·신문배달 등 새벽에 생계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고휘도 차선도색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야간 도로교통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최연청기자 cyc@idaegu.co.kr